

원격수업의 그늘 '학력격차' 해소될까

도교육청 올해 담임 지도 초등 학습 프로그램 운영 대면지도 원칙 주당 2시간 이상 맞춤형 수업 진행 중·고교 중하위권 학생 대상 방과후 교과수업 계획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력격차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해소 대안을 마련, 새 학기부터 추진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교육청은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정규 수업이 끝난 후 담임 책임지도로 방과후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은 담임 교사(교과)가 정규수업이 끝난 후에 기본학력, 독서역량, 관계형성 및 정

서 등을 지원해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학력 학업성취와 교과학습 진단평가 결과 및 독서역량·정서 등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비롯해 담임 추천 학생과 희망 학생 등이 대상이다. 프로그램은 학급 단위 소규모(10명 이내)로 편성하되 학교 여건을 고려해 학급을 통합해 운영할 수도 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대면 지도를 원칙으로 진행되며, 주당 2시간 이상 운영된다. 소요 예산은 전액 도교육청이 지원한다.

프로그램 내용은 학생 진단 및 실태 파악 결과를 반영해 학생 맞춤형으로 구성되는데 국어, 수학, 영어, 독서교육, 정서지원·상담 등의 교과 중에서 학생에게 지원이 필요한 교과를 자율 선택해 운영하게 된다.

중·고등학생들의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고입선발고사(연합고사) 폐지로 거의 사라진 '교과 방과후 수업'이 확대 운영될지도 관심사다.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과거 일률적인 학력향상 프로그램인 '보충수업'의 개념이 아닌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중하위권 학생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고등학교 '교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교별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한편 도교육청 제주교육정책연구소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도내 교원·학생(초4~고3)·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격수업 운영 현황 및 지원방안 설문조사' 결과 교원 905명(응답자 1434명의 63.1%)이 '원격수업으로 학생간 학습수준 격차가 커졌다(매우 커졌다 10.6%(152명), 커졌다 52.5%(753명))'고 답했다.

학생 5852명(응답자 8132명의 72%)은 '원격수업이 계속되면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심해질 것이다(약간 그렇다 40.4%, 매우 그렇다 31.6%)'라고 응답했다. 오은지기자

발뺏하다 때마침 배달음식에 '덜미' 스크린골프장 2곳 음식물 섭취금지 위반 과태료 도방역당국 올해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22곳 적발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실내 스크린골프장 3곳이 적발돼 각 15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자치도는 체육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를 위반한 실내 스크린골프장 2곳과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 스크린골프장 1곳을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율령이 민간 실내체육시설 1646업소를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을 어긴 22곳을 적발했다.

이중 주류나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출입자 명부 미관리 4곳,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 위반 1곳,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 1곳, 카드도박 등 사행 행위 1곳 등이다. 이 가운데 3개 업소는 1차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2번 이상 적발됐으며, 모두 실내 스크린골프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됐으며, 모두 실내 스크린골프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A스크린골프장인 경우 음식물 제공 사실을 극구 부인했으나, 때마침 배달음식이 도착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B스크린골프장은 1개의 방에 5명이 모여 카드 도박을 하다 적발됐으며 C스크린골프장은 술·다과 등의 음식물을 섭취하다 2회 적발됐다.

도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항 적발 시 최초에는 계도 중심 현지 시정 안내를 하고 있지만 고의성이 짙거나 시정 명령 불이행 등 재차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3차 적발 시에는 시설 운영 중단을 할 수 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발달장애인 기소유예 제도 제주지검 전국 4번째 시행

제주에서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이수하는 대신 기소를 유예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시행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주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최근 제주지방검찰청과 함께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발달장애인 성범죄 중 경미한 사건에 대해 교육을 이수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검찰청은 대전지검, 울산지검, 동부지검이며 제주지검은 전국에서 4번째 시행 지역이 된다.

제도 시행의 배경은 최근 제주서 발달장애인에 의한 가해 및 피해사건은 늘어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 특성상 통상적인 형사절차에 따른 처벌만으로는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면서다.

제주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지난해 접수된 60개 사건 중 18개가 성폭력·음란사건으로 파악됐다. 또한 전체 가·피해자 86명 중 성폭력·음란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22명으로 집계됐다.

승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새해 새봄 부르는 입춘굿 2021 탐라국입춘굿이 2·3일 이틀 동안 제주목 관아에서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로 마련된 가운데 3일 입춘 날에 맞춰 제주큰굿보존회 집전으로 입춘굿 초감제가 열리고 있다.

경찰, 생후 7개월 아이 학대 의혹 수사

"그네 타다 다쳤다는 부모 주장 신빙성 낮아"

제주에서 생후 7개월 남자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 해당 아동의 상처가 '외력'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제주시 소재 병원에 입원한 7

개월 남아가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병원에서부터 경찰에 접수됐다.

당시 병원에서는 이 남아가 외부 충격에 의해 갈비뼈 골절과 복부 다발성 장기손상을 입었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거에도 이 남아가 갈비뼈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집안에서 아기가 그네를 타다 다쳤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제주경찰은 3일 의사와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고, 회의 결과 해당 남아가 '외력'에 의해 다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남아는 사고를 당했거나, 누군가에게 맞아 상처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네를 타다 다쳤다는 주장은 현재까지 신빙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남아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승은범기자

설 앞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잇따라

지난 2·3일 4명 추가 확진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 등 3일 기준 누적 확진 527명

설 연휴를 한 주 앞두고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일 확진자 1명(제주 524번)이 발생한 데 이어 이날 3명(제주 525~527번)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524번 확진자는 지난달 29일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를 타고 입도한 관광객이다. 제주에 머물던 중 지난 2일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접촉자로 통보돼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같은 날 오후 6시10분쯤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3일 오전 0시부터 오후 5시 사이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525번 확진자는 해외입국자로, 지난 2일 هنگ가리에서 입국했다. 입도 직후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

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후 자가격리를 진행하다 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았다.

526번 확진자는 수도권 입도자로,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다.

526번은 지난 1일 오후 4시쯤 김포에서 입도한 후 제주에 머물던 중 지난 2일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3일 오후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함께 입도한 가족 2명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 중이다.

527번 확진자는 524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됐다. 도방역당국은 524번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달 29일 527번 확진자와 함께 식사가 이뤄진 사실을 파악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3일 오후 최종 양성 판정을 내렸다.

한편 3일 오후 5시 기준 도내 격리 중인 확진자는 11명이다. 누적 확진자 수는 527명으로 늘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제2공항 반대가 제주를 살립니다.

제2공항 여론조사에서 "반대한다"고 답해주세요.

여론조사 기간| 2월 15일, 16일, 17일



2월 15,16,17일엔 낮선 전화도 꼭! 받아주세요.



주변사람에게 제2공항 여론조사를 알려주세요.



제2공항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반대한다 답해주세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특별자치도당